

2021년 3월 3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중국 긴축 이슈 및 차익 매물로 부진

중국 은보감위 주석 “선진국 금융시장은 버블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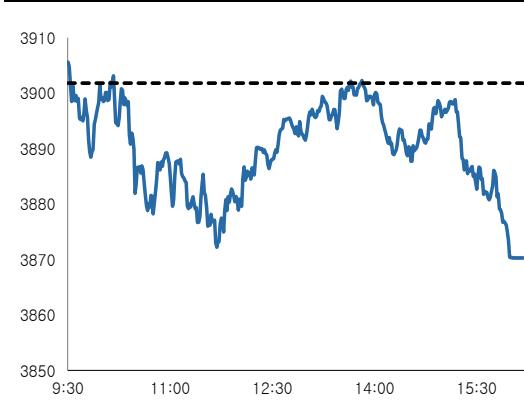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긴축 우려, 부양책 논란

미 증시는 추가 부양책 논란이 지속되자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특히 중국 은보감위 위원장의 ‘버블’ 언급과 ‘유동성 흡수’ 시사도 부담. 이 여파로 반도체 등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경제 정상화 기대 속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보이는 업종 차별화가 진행. 다만 이러한 경제 정상화 기대로 장중에 지수는 낙폭을 축소하기도 했으나 매물 출회는 지속(다우 -0.46%, 나스닥 -1.69%, S&P500 -0.81%, 러셀 2000 -1.93%)

중국 은행, 보험 감독위원회(은보감위) 위원장인 구수칭 주석은 전일 “유럽, 미국 및 기타 선진국에서 금융 시장은 실물 경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조만간 또는 나중에 가격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유동성과 관련해 “규제 당국은 자본 유입의 규모와 속도를 통제할 수 있지만 아직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부동산은 투기로 거품이 형성되어 있어 매우 위험하다”라고 주장. 시장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인물 중 하나인 은보감위 주석의 이날 발언으로 온건한 통화정책 중단 및 긴축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 문제는 이러한 긴축 이슈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를 비롯해 경제 성장률이 개선된 국가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미국도 1 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애틀란타 연은 등은 10% 성장을 전망하는 등 경제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어 긴축 이슈에 민감

지난 주 미 하원은 1.9 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 주말에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던 시간당 최저 임금 상향 조정을 제외한 부양책을 상원에서 본격 논의. 물론 공화당은 이번 부양책에 대해 기업과 학교, 주정부 지원 등에서 낭비되는 지출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최저 임금 인상을 제외 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시장은 3 일 상원에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 했으나 논란 확산으로 지연 될 것으로 예상. 한편, 개별 업종의 변화도 시장에 영향. 전기차 업종은 중국 전기차업체들의 2 월 판매 급감 소식으로 하락했고 크루즈 업종은 투자의견 상향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 진행. 이는 최근 채권, 상품,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자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개별 종목, 업종 이슈 중심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043.87	+1.03	홍콩항셍	29,095.86	-1.21
KOSDAQ	923.17	+1.01	영국	6,613.75	+0.38
DOW	31,391.52	-0.46	독일	14,039.80	+0.19
NASDAQ	13,358.79	-1.69	프랑스	5,809.73	+0.29
S&P 500	3,870.29	-0.81	스페인	8,355.80	-0.27
상하이종합	3,508.59	-1.21	그리스	817.03	+1.80
일본	29,408.17	-0.86	이탈리아	23,083.55	-0.7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테슬라 등 전기차 업종 낙폭 확대

테슬라(-4.45%)는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3.5%를 기록하며 작년 동월 5% 이상에서 감소했다는 소식과 미국에서도 경쟁 심화 가능성에 부각되자 하락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13.00%)와 샤오펑(-11.27%), 리오토(-8.20%)는 2월 자동차 판매가 1월에 비해 크게 감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타겟(-6.77%)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 출발 했으나 가이던스를 제공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하락 했다. 줌 비디오(-9.00%)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로 급등 하며 출발했으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마이크론(-3.87%)을 비롯해 AMAT(-3.89%) 등 반도체 업종은 전일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 속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0% 하락했다. 애플(-2.09%)도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했다. 작년 미국은 15개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으나 올해는 64개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GM(+2.99%)과 포드(+4.76%)는 북미 지역의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되자 상승했다. 카니발(+4.87%), 로얄 캐리비안(+2.48%) 등 크루즈 업종은 맥쿼리가 백신 효과로 봄까지 전면 중단했던 미국 항해가 재개 될 수 있다는 분석과 이를 토대로 투자의견이 상향 조정 되자 상승했다. US스틸(+1.48%) 등 철강업종, 프리포트 맥모란(+0.80%) 등 광산업종은 금속 가격 상승으로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79%	대형 가치주 ETF(IVE)	-0.25%
에너지섹터 ETF(OIH)	-3.21%	중형 가치주 ETF(IWS)	-0.51%
소매업체 ETF(XRT)	-1.72%	소형 가치주 ETF(IWN)	-1.33%
금융섹터 ETF(XLF)	-0.36%	대형 성장주 ETF(VUG)	-1.36%
기술섹터 ETF(XLK)	-1.59%	중형 성장주 ETF(IWP)	-1.7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41%	소형 성장주 ETF(IWO)	-2.59%
인터넷업체 ETF(FDN)	-2.30%	배당주 ETF(DVY)	-0.22%
리츠업체 ETF(XLRE)	-0.62%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5%
주택건설업체 ETF(XHB)	+0.1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4%
바이오섹터 ETF(IBB)	-2.05%	미국 국채 ETF(IEF)	+0.18%
헬스케어 ETF(XLV)	-0.29%	하이일드 ETF(JNK)	-0.22%
곡물 ETF(DBA)	+0.47%	물가연동채 ETF(TIP)	+0.41%
반도체 ETF(SMH)	-3.07%	Long/short ETF(BTAL)	+0.1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67.32	-0.58%	+1.20%	+23.02%
소재	475.55	+0.58%	+0.22%	+5.68%
산업재	781.68	-0.27%	+1.14%	+7.98%
경기소비재	1,305.77	-1.27%	-1.48%	-2.83%
필수소비재	654.56	-0.18%	-1.99%	-0.73%
헬스케어	1,324.03	-0.25%	-0.18%	-1.57%
금융	550.72	-0.30%	+0.95%	+13.24%
IT	2,327.66	-1.63%	-0.02%	+0.07%
커뮤니케이션	235.89	-0.69%	-0.49%	+5.96%
유틸리티	300.91	-0.28%	-2.13%	-5.23%
부동산	230.96	-0.71%	-3.39%	-1.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빠른 업종 순환매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9% MSCI 신흥 지수 ETF 는 0.98%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4.2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 국채금리 안정으로 급등 하기도 했으나, 중국의 긴축 우려를 높이는 은보감위 주석의 발언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며 마감 했다. 특히 2 차전지 업종을 비롯해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전일 미 증시의 변화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이 특징이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0%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더불어 전기차 업종이 중국 판매량 급감으로 하락한 점도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 추이가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는 각국의 경제 정상화 기대 속 한국 수출 증가세 확대 가능성은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노인 사망자가 1 월 주당 7 천명에서 현재는 2 천명대로 낮아졌으며, 이 추세는 미 의회 예산처가 주장했던 올해 중순경 경제 정상화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매물이 출회될 경우 반발 매수세 또한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제 정상화 이슈는 전일 상승분 반납 요인이었던 긴축 이슈를 자극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 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주도 섹터가 없는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로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 상회

2 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9%로 예상(yoy +0.9%)과 부합되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2% 상승했다.

지난 주 미국 체인점, 할인점 판매량을 말하는 레드북에서 매장 판매가 지난주 (yoY +2.9%) 보다 양호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캐나다 연 환산 GDP 성장률은 9.6%로 예상(7.5%)을 상회하는 등 경기 회복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였다. 12 월 GDP 성장률은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예상(mom +0.3%)을 하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60 달러 하회

국제유가는 OPEC+ 정례 회담을 앞두고 감산 규모 축소 가능성에 높아지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더불어 최근 텍사스 지역의 기온이 정상화를 보이자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증산 속도가 빨라진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추가 부양책 처리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 나아가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와 브레이너드 연준이사가 인플레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통화정책의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1%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혼조 양상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지난 주 과도한 움직임의 반작용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더불어 주식시장 부진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 압력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연준의 목표는 지속적인 인플레”라고 주장한 점도 금리 하락 요인이었다.

금은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로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경제 정상화 기대로 상승했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은 원월물의 가격이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로 거래되는 등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며 상승했다. 달러 약세도 곡물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4%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9.75	-1.47	-3.11	Dollar Index	90.786	-0.28	+0.68
브렌트유	62.70	-1.55	-2.76	EUR/USD	1.2087	+0.32	-0.52
금	1,733.60	+0.62	-4.00	USD/JPY	106.75	-0.01	+1.43
은	26.879	+0.75	-3.11	GBP/USD	1.3956	+0.22	-1.11
알루미늄	2,211.50	+3.85	+3.00	USD/CHF	0.9146	-0.07	+1.05
전기동	9,170.50	+1.40	-0.39	AUD/USD	0.7822	+0.64	-1.13
아연	2,851.00	+1.24	-0.12	USD/CAD	1.2628	-0.14	+0.33
옥수수	545.00	+1.25	-1.36	USD/BRL	5.6645	+0.53	+4.11
밀	666.25	+2.46	-0.60	USD/CNH	6.475	+0.08	+0.23
대두	1,412.50	+1.53	+0.28	USD/KRW	1124.00	+0.04	+1.22
커피	133.85	-1.44	-3.22	USD/KRW NDF1M	1124.27	+0.58	+1.2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409	-0.85	+6.69	스페인	0.317	-0.50	-4.50
한국	1.970	0.00	+4.00	포르투갈	0.214	-0.50	-3.70
일본	0.128	-2.70	+0.30	그리스	0.996	-0.50	+7.00
독일	-0.352	-1.80	-3.70	이탈리아	0.674	+1.70	+3.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